

세계정당인들과 함께한 골프프로 상선과 초대 선수  
**임핑 다이내믹스 컨트리 클럽**  
 ● 광주·동광명IC 구간 광복 동원드 관동  
 (명동동광명IC 영수순 10분내 개시)  
 ● 우천시 9월 이후 출발요금정산제 실시  
 ● 예약 : www.hpdyneasy.co.kr 0801 320-7700

# 오늘 밤은 '피겨 퀸'과 함께

## 김연아 그랑프리 5회 연속 우승 도전

### "롱 에지 판정 시비 잠재우겠다" 다짐

소프트프로그램에서 석연찮은 롱 에지(wrong edge) 판정으로 '정적 점프'의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김연아(18·군포 수리고)가 강한 정신력과 완벽한 연기를 앞세워 판정 시비를 잠재우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나섰다.

2008-200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시니어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 3차 대회 '컵 오브 브 차이나' 여자 싱글 소프트웨어에서 63.64점으로 1위에 오른 김연아는 8일 오후 5시부터 프리스케이팅 연기를 통해 그랑프리 시리즈 5회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59.30점으로 2위를 차지한 안도 미키(일본)와 점수 차는 4.34점으로 근소한 차이로 김연아는 '명품 점프'와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이라는 최고의 무기를 앞세워 기필코 금메달을 따내 상좌를 차지할 자존심을 치유하겠다고

버리고 있다. 김연아는 지난 6일 소프트웨어에서 김연아는 첫 번째 과제인 트리플 플립-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에서 '잘못된 에지 사용'이라는 심판진의 판정을 받았다.

이러한 트리플 러츠에서 회전수 부족으로 감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김연아도 웃으면서 실수를 인정했지만 트리플 플립의 에지 사용이 잘못됐다는 판정만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ISU는 이번 시즌부터 러츠나 플립 점프에서 확실하게 잘못된 에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주의 깊게 볼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체점표에 롱 에지를 뜻하는 'e'가 아닌 'l'을 도입했지만 심판진은 가차없이 롱 에지 판정을 내려 논란거리를 제공했다.

이미 시니어 무대 3년차인 김연아는 교과

서적인 에지 사용으로 국제심판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왔고, 지난 1차 대회에서도 같은 기술에서 1.20점의 가산점까지 받았던 상황에서 이번 '롱 에지' 판정은 의구심을 자아낼 수밖에 없다.

브라이언 오서 코치는 "트리플 플립에 어텐션 마크(!)가 붙었다면 이해의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예 롱 에지를 썼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칫 그냥 넘어가면 계속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반드시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연아는 더욱 갈급한 점프와 완벽한 연기로 금메달을 따겠다는 각오뿐이다.

1차 대회에서 레벨 3을 받았던 레이백 스핀과 플라잉 잇스핀도 집중적인 연습을 통해 레벨 4로 끌어올린 만큼 점프에서 실수를 최소화한다면 안도에게 역전의 발미를 내주지 않을 수 있다.

한편 김연아는 8일 프리스케이팅을 마치고 나서 9일 오후 갈라쇼까지 끝낸 뒤 전지훈련지인 캐나다 토론토로 돌아가 내달 고양사에서 치러질 그랑프리 파이널 준비에 나서게 된다. /연합뉴스



# '거포 장전'

## 이승엽 일본시리즈 6·7차전 대비 컨디션 조절

이승엽(32·요미우리 자이언츠)이 8,9일 홈구장 도쿄돔에서 계속되는 일본 프로야구 챔피언십 결선전 일본시리즈 6,7차전에서 대미를 장식할 한 방을 준비한다.

세이부 라이온스와 일본시리즈에서 3승2패로 앞서 6년 만에 정상 탈환에 1승만을 남겨둔 요미우리는 8일 오후 6시15분에 열리는 6차전에서 우승을 결정짓고 싶어한다. '8'일은 배번 88번을 단 하라 다쓰노리 감독이 좋아하는 숫자이기도 하다.

타격 부진으로 5차전에서는 선발 라인업에서 빠져 대타로 나서는 신세가 됐지만 이승엽은 자신에게 온 마지막 기회만큼은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다. 그래서 주축 선수들이 쉬는 7일 휴식일에도 어린 선수들과 어울려 도쿄돔에서 타격 훈련으로 구슬땀을 흘렸다.

4차전까지 이승엽은 12타수1안타에 삼진 8개를 당했고 볼넷과 몸 맞는 볼을 합쳐 사구를 4개를 얻었다. 2005년 롯데 마린스를 일본 최정상급으로 이끌던 시절 11타수6안타에 홈런 3방, 6타점을 올렸던 때와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이다. 이승엽은 "7일 훈련을 통해 빨리 타격 밸런스를 되찾겠다. 도쿄돔에서는 반드시 '한 건'을 올리겠다"고 다짐했다. 홈 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승 행거를 앞둔 이승엽이 부진을 일거에 씻는 한 방으로 2008년 유종의 미를 거둘 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 신지애 '기분 좋은 출발'

## 임은아와 함께 4언더 3위

### LPGA 미즈노클래식 1R

'국내 여자 골프 자존' 신지애(20·하이마트)와 임은아(25)가 일본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미즈노 클래식 첫날 상위권에 자리잡았다.

신지애는 7일 일본 미에현 시마 긴데쓰 가시고지마 골프장(파72·6천506야드)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보기는 1개로 막고 버디 5개를 잡아 4언더파 68타를 쳤다.

지난 5월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투어 버넬레이디스에서 우승한 임은아도 신지애와 함께 선두에 1타 뒤진 공동 3위에 올랐다. 선두는 5언더파 67타를 친 핫토리 마유

와 사이키 미키(이상 일본).

10번홀에서 출발한 신지애는 12번홀(파4)에서 1타를 잃었지만 13번홀(파5) 버디로 만회했고 16번홀(파5)에서 1타를 줄여 상승세를 탔다. 후반들어서도 버디 3개를 추가한 신지애는 지난 8월 브리티시여자오픈에 이어 LPGA 투어에서 두번째 우승을 향한 발판을 마련했다.

홍진주(24·SK에너지)도 3언더파 69타로 공동 5위에 오르는 등 한국 선수 6명이 톱10에 포진했다.

LPGA 투어 상위랭커들의 성적은 좋지 못했다. 카리 웹(호주)은 이븐파 72타로 공동 41위에 이름을 올렸고 청야니(대만)는 1오버파 73타로 공동 55위, 모건 프레스(미국)은 3오버파 75타로 공동 75위까지 떨어졌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연합뉴스



신지애가 7일 일본 미에현 시마 긴데쓰 가시고지마 골프장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미즈노 클래식 첫날 9번홀에서 파퍼트를 성공시킨 후 활짝 웃고 있다. /연합뉴스

# 동신대 박성국 KPGA 첫 우승 도전

광주동신대학교에 재학중인 박성국(20·테일러메이드·사진)이 한국프로골프투어 상위 랭커 40명만 출전한 가운데 치러진 '올스타전' 하나투어챔피언십 둘째날 리더보드 상단을 차지하며 생애 첫 우승 도전에 나섰다.

7일 강원도 횡성 오스타골프장 남코스(파72·6천652m)에서 열린 2라운드에서 박성국이 2언더파 70타를 치며 중간합계 6언더파 138타로 단독 선두에 나섰다.



## 이왕표 기선 제압

분하며 이왕표를 때리자 이왕표가 밥삼의 따귀를 때리고 있다. 두 선수는 오는 1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제2경기장에서 열리는 '박치기왕' 김일을 추모하는 제3회 포에버 히어로(Forever Hero) 대회에서 맞붙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7일 오후 서울 당산동 펠리스 웨딩홀에서 열린 프로레슬러 이왕표와 밥삼의 기자회견에서 경기 진행방식과 관련 의견 차이를 보인 밥삼이 흥분하며 이왕표를 때리자 이왕표가 밥삼의 따귀를 때리고 있다. 두 선수는 오는 1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제2경기장에서 열리는 '박치기왕' 김일을 추모하는 제3회 포에버 히어로(Forever Hero) 대회에서 맞붙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 하나투어챔피언십 2R 6언더 단독 선두 나서

박성국은 지난해 데뷔해 에이스 저축은행 몽베르 오픈에서 준우승했지만 한국 골프를 눈여겨봐온 팬이 아니면 낯선 이름이다.



올해도 '톱 10'은 두 번 뿐이며 삼강클럽 38위로 겨우 이 대회 출전권을 받았다.

박성국은 16번홀까지 4타를 줄여 4타차 단독 선두를 달렸지만 17번홀(파3)에서 더블보기를 적어내는 통에 김대현(20·동아회원권)에 1타 앞선 선두에 만족해야 했다.

첫날 선두였다가 이날 이븐파 72타를 쳐 2위로 내려앉은 김대현도 보기 드문 장타자라는 사실을 이목을 끌었을 뿐 2년차 무명선수. 다만 김대현은 오스타골프장 남코스에서 열렸던 KEB인비테이셔널에서 준우승해 이번 대회에서 유력한 우승후보로 거론됐다.

부활의 나라를 연 노장 강욱순(42·안양베네트스)이 이부영(44)과 함께 공동 4위(3언더파 141타)를 달렸고 삼강클럽과 다승왕을 노리는 김형성(28·삼화저축은행)은 2언더파 142타로 공동 6위에 올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연합뉴스

# 한국 "日 꺾고 4강 가자"

## 오늘 밤 10시 亞축구 U-19 선수권

19세 이하(U-19) 축구대표팀이 4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의 길목에서 '영원한 맞수' 일본과 만났다. 조동현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대표팀은 8일 오후 10시15분(이하 한국시간) 사우디 아라비아 담맘 프린스 모하메드 빈 파흐드스타디움에서 열린 2008 아시아축구연맹(AFC) U-19 선수권대회 8강에서 일본과 격돌한다. 2004년 이후 4년 만에 정상탈환을 버리는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2승 1패로 B조 2위, 대회 첫 우승을 노리는 일본은 2승1무로 A조 1위로 8강에 올라 4강 티켓을 놓고 한판 대결을 벌이게 됐다.

아시아 정상권인 한·일 양국 축구를 쫓아갈 기대주들의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많다.

무엇보다 이번 대회 4강 안에 들어가 내년 이집트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 나갈 수 있어 양팀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일전이다.

한국은 2003년 아랍에미리트연합(UAE)대회부터 3회 연속 FIFA U-20 월드컵 무대를 밟았다. 일본은 7회 연속 월드컵에 출전했다. 하지만 둘 중 하나는 다음 월드컵에 나서지 못한다. 한국은 올해로 36회째를 맞은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총 11회 정상(공동우승 2회 포함)에 오른 최다 우승국이다. 반면 일본은 준우승만 여섯 차례 거뒀을 뿐 아직 한 번도 정상에 오른 적이 없다.

한국은 일본과 U-19 및 U-20 대표팀 간 역대 맞대결에서 25승8무6패로 압도적 우위를 점해왔다. /연합뉴스

# 한국여자축구 본선행

## 亞축구 U-19 선수권

한국 18세 이하 여자청소년축구대표팀이 5연승을 거두며 2009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청소년(U-19)선수권대회 본선에 진출했다.

최인철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6일 밤(이하 한국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대회 예선 조별리그 A조 5차전 최종전에서 미얀마를 5-0으로 꺾었다.

한국은 김나래(오산정보고)가 전반 13분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기록한 뒤 전반 40분 강유미(동산정보고)의 추가골로 앞서갔고, 후반에도 권은숙(장호원고), 임선주, 공혜원(이상 현대정광고)이 릴레이골을 터트려 대승을 마무리했다.

4차전까지 요르단,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를 연달아 물리친 한국은 이로써 5연승을 거두며 조 1위로 내년에 열리는 대회 본선에 가볍게 올랐다. /연합뉴스



8일(토)

- ▲천하장사 씨름대회(13:00·MBC ESPN)
- ▲2008 LPGA 미즈노 클래식 2R(14:00·SBS골프)
- ▲08/09 프로농구(LG·오리온스)(14:45·Xports) <KT&G·삼성>(14:50·SBS스포츠) <전지랜드·모비스>(15:00·MBC ESPN)
- ▲KB국민은행 2008 내셔널리그 축구<수원시청·부산교통공사>(15:00·KBS N 스포츠)
- ▲2008 SBS코리아투어 하나투어 챔피언십 3R(15:30·SBS골프)
- ▲08/09 여자프로농구(신한은행 :

KB국민은행)(16:50·SBS스포츠)

- ▲2008 일본프로야구 일본시리즈 6차전(요미우리 : 세이부)(18:00·SBS스포츠)
- ▲프리미어리그(아스날 : 맨체스터 Utd)(21:35·MBC ESPN) <웨스트 햄 : 에버튼>(23:50·MBC ESPN)
- ▲AFC U-19 챔피언십 8강(한국 : 일본)(22:00·SBS스포츠·Xports)
- 9일(일)
- ▲08/09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리버풀 : 웨스트브롬위치)(02:20·MBC ESPN) <블랙번 : 첼시>(22:20·MBC ESPN)
- ▲08/09 프랑스 리그1 축구(AS모나코 : 리옹)(03:00·KBS N 스포츠)
- ▲2008 PGA 칠드런스 미라클 베트워크 클래식 3R(03:00·SBS스포츠·SBS골프)